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노년시대

실버NEWS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조상의 지혜와 멋이 담긴 수공예품 선보여

제8회 노인 솜씨자랑 대회 열려 ... 현내면 산학리 지연희씨 종이공예 ‘꽃병·오리’ 대상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들이 가진 기술과 솜씨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제8회 노인솜씨자랑대회에서 현내면 산학리 지연희씨가 종이공예 ‘꽃병, 오리’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는 지난 22일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5개 읍면 출연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어르신들은 짚공예, 목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 등의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공

예품과 옛 농촌의 생활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간성읍에서는 지게, 짚신, 또와리, 다래키, 씨래, 달구지, 벌통, 한옥 등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거진읍에서는 산태미, 소고리, 닭알 등우리, 맥방석 등을 출품했다.

토성면에서는 마을을 축소해 만든 한옥마을, 용마루, 설피, 망태기, 망태기 틀 짜는 기계 등을, 죽왕면에서는 쪽씨래, 또와리, 삼태기, 전복가두리, 강판 등을, 현내면에서는 가마니, 가마니틀 짜는 기계, 향아리 뚜껑, 물레방아, 용마루 등을 선보였다.

김완식 노인회장은 “이날 대회

를 통해 노인솜씨 보유자를 적극 발굴하고, 선조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조상들의 지혜와 멋을 엿보고 건전한 여가활동도 펼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대회의 수상 내역이다. ▲대상 △지연희(현내면 산학리) ▲금상 △이화순(토성면 아야진리) △장근호(죽왕면 향목리) ▲은상 △최정녀(간성읍 상1리) △윤재식(거진읍 봉평리) △허원택(죽왕면 삼포2리) ▲동상 △최대희(현내면 죽정2리) △김영국(토



지난 22일 열린 제8회 노인솜씨자랑대회에는 12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성면 신평1리) △송옥희(간성읍 금수리) ▲장려상 △박용득(간성읍 행상1리) △임근주(거진읍 봉

평리) △김남술(현내면 명파리) △김경웅(죽왕면 아촌리) 박병화(토성면 신평1리). 원광연 기자

노인회 고성군지회 연수회 가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회장 김완식)는 지난 24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연수회는 22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진해수욕장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한 후, 태백시에 있는 석탄박물관 및 강원랜드를 방문했다.

원광연 기자

우리마을 경로당 / 대진 3·4·5리 통합경로당

전망 좋아 여가활동 즐기며 건강관리



국동욱 회장

현내면 대진 3·4·5리 통합경로당은 2010년 7월에 새롭게 준공돼 지상 2층 연면적 162.51㎡으로 현내면 대진어촌계활여회센터 옆에 위치해 있다.

대진통합경로당은 1층과 2층으로 거실, 주방, 욕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대진 3·4·5리의 어르신 200여명이 쉼터 및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바로 앞에 시원한 바다풍경이 펼쳐져 있어 전망이 탁월한



현내면 대진 3·4·5리 통합 경로당 전경.

대진통합경로당은 건물이 지어지지 오래지 않아 깨끗한 리조트를 연상케한다. 이처럼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해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국동욱 회장(79세, 사진)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여름에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넉넉

하지 않아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며 “입기 4년만에 회원들을 효도관광이라도 한번 시켜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데 회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행복한 노후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경로당의 유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지역 어르신을 공경합시다!

고성신문 지역사랑 캠페인